

悲哀

호젓한 世紀의 달을 짊어
알듯 모를듯 한데로 거닐과저!

아닌 밤중에 튀기듯이
잠자리를 뒤흔쳐
끝없는 曠野를 홀로 거니는
사람의 心思는 외로우려니

아— 이 젊은이는
피라미트처럼 슬프구나

一九三七、八月十八日

비에

호젓한 세기의 달을 따라
알 듯 모를 듯한 데로 거닐과저!

아닌 밤중에 튀기듯이
잠자리를 뒤흔쳐
끝없는 광야를 홀로 거니는
사람의 심사는 외로우려니

아— 이 젊은이는
피라미드처럼 슬프구나

1937. 8. 18.